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一考察

- 自然物을 나타내는 語彙를 中心으로 -

김 희 정*

차례

1. 들어가며
2. 대상자료 및 연구 방법
3. 조사결과
4. 마치며

1. 들어가며

본고는 일제 강점기 직후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일 양국의 유행가 가사를 분석하여, 유행가 가사에 반영된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역사적 정황을 읽어내고 양국 대중의 보편적 정서와 관심사를 비교 고찰하는 데 목표를 둔다. 유행가는 리듬과 멜로디로 구성되는 음악적인 요소와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적 요소가 결합된 대중예술이다. 유행가의 단순한 리듬과 반복되는 멜로디는 가사를 기억하기 쉽게 하며, 유행가 가사는 개인의 감정과 체험의 표현을 통해 대중들의 보편 정서를 반영한다. 따라서 널리 유행된 유행가 가사에는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된 정서와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유행가의 어휘를 분석함으로써 유행가 가사에 반영된 양 민족의 사회·문화·역사적 정황과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고, 각 시기에 대중적 인기를 끌던 유행가가 대중들의 욕망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각 시기 대중들의 삶의 양상과 생활감정, 현실 인식의 태도 등을 면밀히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먼저 유행가의 소재로 가장 비중이 높은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 산하를 나타내는 어휘, 천문을 나타내는 어휘, 기상을 나타내는 어휘, 광물을 나타내는 어휘, 경지를 나타내는 어휘 등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노래로 표현하고자 한 것을 가시화해 그 양상을 파악하고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대상자료 및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당시 대중들의 진솔한 삶이 반영된 연구 자료로서 유행가를 채택하였고 분석 대상 작품들은 한일 양국의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각 시대에 유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는 한국 곡 235곡과 일본 곡 233곡이다.

한국 자료로는 최근 한국 고음반 연구회에서 영인작업을 거쳐 출간된 『유성기로 들던 가요사 해방-1960』¹⁾(신나라레코드사, 2000) 217곡과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플래티넘 발라드 1930-1950, 1950-1960』(예당음향, 1999)의 음반과 가사집에 실려있는 18곡을 합쳐서 총 235곡이다. 이 곡들은 한국 가요사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수록 작품들의 발표 연도와 작사자, 작곡자, 가수를 명기하고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자료로는 『新版 日本流行歌史 中, 下』(社會思想社, 1997)의 총 233곡의 유행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新版 日本流行歌史 中, 下』는 1970년에 『日本流行歌史』가 초판된 이래 1980년 戰前, 前後의 두 권으로 분할되어 출간되다가 1994년에 이르러 세 권으로 다시 증보되어 10판으로 출간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유행가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²⁾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한일 양국 유행가를 텍스트 파일화 한 다음 언어자료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어절들의 빈도수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한글」에서의 소트작업을 통해 최종 데이터(별개어수와 총출현어수를 포함하여 사용된 문자별 통계)를 만들었다.

3. 조사결과

3.1 어휘의 전체상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한국과 일본의 유행가의 곡목수와 어휘량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한국의 유행가는 모두 235곡이고, 일본의 유행가는 모두 233곡이다. 한국 유행가 235곡에 사용된 총 출현어수는 14,396어이고, 별개어수는 2,804어이다. 일본 유행가 233곡에 사용된 총 출현어수는 14,097어이고, 별개어수는 3,203어이다.

<표1> 한일 유행가의 어휘량

	西曆	곡수	총 출현어수	별개어수
한국	1945-1960	235	14396	2804
일본	1945-1960	233	14097	3203

3.2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는 유행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다. 졸고(2001)에서 유행가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한-8.71% 일-9.82%)는 인칭을 나타내는 어휘(한-4.81 일-3.48)보다 사용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률은 한국보다 1.11%나 높았다.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들의 종류와 그 사용률이 높은 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는 「꽃>산>빛>달>새>강>비>바다>별>바람>하늘>동물>눈>구름>나무>흙>풀>밭>들>이슬>바위>안개>들>모래」의 순이고, 일본의 경우는 「꽃>산>바다>빛>바람>새>달>하늘>나무>비>강>동물>안개>눈>구름>별>이슬>흙>들>풀>밭>들>모래>바위」의 순이었다. 꽃과 산의 사용률이 양국 모두 높고, 「이슬·안개·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그 사용률이 아주 낮은 반면 일본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들이 이들 자연물에 대한 한국인이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정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의 경우 한국인들이 주로 이별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혹은 인생이 강물처럼 덧없음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강물 본래의 자연물의 의미

와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률도 아주 낮았다.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 「꽃·나무·풀」,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 「조류·기타동물」, 산하를 나타내는 어휘 「산·강·바다」, 천문을 나타내는 어휘 「달·별·빛·하늘」, 기상을 나타내는 어휘 「바람·비·눈·안개·이슬·구름」, 광물을 나타내는 어휘 「바위·돌·모래·흙」, 경지를 나타내는 어휘 「밭·들」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 중 꽃과 나무, 풀을 나타내는 어휘의 용례와 전체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일본의 전체 사용률이 2.39%로 한국의 전체 사용률 1.57%보다 0.82% 높음을 알 수 있다. 꽃의 사용률은 일본이 1.75%이고 한국이 1.26%로 일본의 경우가 0.49% 높다. 나무의 사용률은 일본이 0.55%이고 한국이 0.20%로 일본의 경우가 0.35% 높다. 풀의 사용률은 일본이 0.09%이고 한국이 0.11%로 한국의 경우가 0.02% 높다. 일본의 꽃과 나무의 사용률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인이 꽃과 나무에 대한 애착심과 자연 친화적인 성향이 한국인보다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2>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³⁾

식물	한국	일본
꽃(花)	1.26	1.75
나무(木)	0.20	0.55
풀(草)	0.11	0.09
합계	1.57	2.39

일본어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이름, 꽃이름, 풀이름이 있다. 金田一春彦(1986)는 大槻文言이 편집한 『言海』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식물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라고 외국인인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본어에 특히 식물의 이름이 많은 이유로 먼저 일본에 식물의 종류, 특히 나무의 종류가 풍부함과 이로 인해 일본인이 옛날부터 식물과의 깊은 인연과 강한 관심을 들 수 있다. 목조로 된 집에 살고, 다다미방에 앉아서, 마와 목면으로 된 옷을 입고, 나무그릇에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는

생활을 영위해온 일본인에게 식물에 대한 애착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식물의 이름이 다양한 것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는 식물의 종류도 많지만 이에 비례해서 식물의 이름도 많다고 한다. 牧野富太郎의 『日本植物圖鑑』에는 5천 여종 정도의 초목의 이름이 실려 있지만 일본의 식물전체를 추정하면 약 8천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모두 일본어로 명명된다는 것이다. 유행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薔薇・櫻・白樺・水芭蕉・鈴蘭・梅・つばみ」 등의 꽃과 「柳・りんどう・杉・椎の木・薪・櫻・松」 등의 나무 등 모두 일본어로 명명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유행가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식물은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연 「꽃」이라 할 수 있다. 유행가에서의 꽃은 꽃이 갖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지는 모습 등의 의인화를 통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유행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꽃으로는 일본은 「薔薇> 櫻> 白樺> アカシヤ」이고, 한국은 「장미꽃> 동백꽃> 진달래> 무궁화」의 순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장미가 가장 많다. 「장미」의 경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의 상징으로 가장 널리 칭송 받고 있는 꽃이기 에 사랑을 주제로 하는 유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표상, 젊음의 찬미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장미는 버림받은 여인의 초라한 모습에 빗대어 표현되거나 젊음과 기쁨이 있는 희망의 표상으로 쓰이고 있다. 장미 다음으로 유행가에 많이 등장하는 꽃은 일본은 벚꽃이고 한국은 동백꽃과 진달래를 이어 국화인 무궁화였다. 국화(國花)는 한 국가와 한 민족이 그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삼고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꽃이나 식물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국화는 그 나라의 국민성을 상징할 만한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역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역사에 깊이 관련된 전설이 있는 꽃이나 식물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는 오랜 역사 속에 우리 민족과 희로 애락을 함께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국화가 된 대표적인 예이다. 무궁화는 법률이나 제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겨레의 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근역(權域), 근화향(權花郷)이라 불렀는데 이는 ‘무궁화의 나라’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민족과 국가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와 그 직후의 유행가에서의 무궁화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겨레의 꽃으로 연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예문1>과 <예문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과 나무가 주로 비애, 원망,

기다리는 여심 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꽃과 나무가 가지는 자연미와 <예문3>과 <예문4>와 같이 사랑하는 님과 조국의 대상일 뿐 비애나 원망 등의 표현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문1>

아 꽃필 때나 오시려느냐 아 눈을 때나 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메고 넘는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가거라 삼팔선 이부풍 박시춘 남인수)

<예문2>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설움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정두수 전오승 나애심)

<예문3>

貴族と俺とは 同期のさくら
おなじ兵學校の 庭にさく
さいた花なら 散るのは覺悟
みごと散ります 國のため(同期のさくら 帖佐裕 大村能章)

<예문4>

太陽は呼ぶ地は叫ぶ
起てたくましい労働者
働く ものの紅い血で
世界をつなげ花の輪に(世界をつなげ花の輪に 篠崎 正 其作秋吉)

꽃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꽃의 용례>

일본: 花・薔薇・櫻・白樺・アカシヤ・花びら・花束・花片・花賣・バラ色・水芭蕉・鈴蘭・梅・ミモザ・ばら・小花・はな・櫻木・野ばら・つぼみ・葉櫻・すずらん・しろばら・花龍・花園・花畑

한국: 꽃·꽃잎·장미꽃·동백꽃·진달래꽃·해당화·무궁화·들국화·꽃다발·꽃바
 람·낙화·낙화암·장미·개나리·단풍잎·칸나·카네이션·모란봉·복사꽃·
 카나리아·질레꽃·눈꽃연밥·진달래·사랑꽃·무궁화꽃·목단꽃·모란꽃·모
 람·코스모스·맨드라미·매화·이화·풀꽃·철쭉꽃·아카시아·나리꽃·꽃집
 ·꽃수레·꽃시절·꽃송이·꽃바구니·꽃가마·들꽃·기억안자꽃·능금꽃·갈
 대꽃·두견화

나무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의 용례>

일본: 木·柳·りんどう·竝木·杉·椎の木·椰子·竝木·道木·偶茶の木·白樺
 林·杉の木·杉山の木·小菅·小柳·松風·木立·木蔭·柴·薪·櫻木·榆
 の木·松·樺の木

한국: 나무·버드나무·정자나무·소나무·감나무·사시나무·솔나무·박달나무·외
 솔나무·앵두나무·능금나무·수양버들·실버들·봉버들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 중 「풀」은 꽃과 나무에 비해 사용률은 낮지만 유행가에서 없어
 서는 안될 중요한 소재이다. 일본의 경우 「麗人草」를 제외하고는 풀이 갖는 본래의 자연
 물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풀」을 「부평초·망향초」와 같이 정든 고향
 을 떠나 타향살이의 서러움 등을 풀에 의인화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초가집·초가삼간」
 은 서민들의 소박한 삶을 대변하는 등 당시의 사회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풀의 용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풀의 용례>

일본: 草·乾草·麗人草·すずらん草·青草·草葉·七草色·煙草·卷煙草·ホー
 レン草

한국: 풀잎·풀길·수풀·풀꽃·풀밭·방초·부평초·망향초·해초·초가집·초가삼
 간·담배짚초

3.2.2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의 용례와 전체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

표3>과 같다. 전체적으로 새, 양, 말 등의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 사용률은 한국이 0.95%, 일본이 0.94%로 거의 비슷하다.

<표3>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

동물	한국	일본
새(鳥)	0.63	0.63
기타 동물	0.32	0.31
합계	0.95	0.94

그러나 특이할 만한 것은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가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에 비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동물은 식물에 비해 노래의 소재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보다는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가 그 종류도 다양하여 노래의 운치를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어서 유행가의 소재로 선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유행가에 나타난 동물을 살펴보면 새의 용례가 다른 동물의 용례보다 월등히 많다. 「千鳥 お前も 切なかる」、「泣くな 火の鳥 旅の鳥 旅の鳥 ああ 旅の鳥」、「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흐르는 백마강에 물새가 되어 한 많은 세상살이 설움을 잊으려가」、「물새야 왜 우느냐」 등 새의 심상을 통해 자신의 가련함과 슬픔 등을 노래한 것이 많이 있다. 동물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의 용례>

일본: 鳥・鷗・雁・小鳥・とんび・千鳥・小鳩・からす・夢見鳥・渡り鳥・つばめ・鳩・鷗鳥・磯千鳥・駒鳥・山鳩・明鳥・にわとり・旅がらす・つばき・傳書鳩・鳥籠・鳥打・かもめ鳥・片羽鳥・海鳥・はぐれ鳥・呼子鳥・あなご・犬・蝶蝶・山羊・馬・河豚・魚・駱駝・ウナギ・紺蛇白馬・鯨・釣る・魚屋・漁火・越後獅子・鯉・鯉名・しゃこ・獅子・仔山羊・子山羊・子羊・赤貝・えび・虎

한국: 새·물새·갈매기·종달새·산새·청노새·비둘기·기러기·호랑나비·파랑새·소쩍새·부엉새·물제비·새소리·삐죽새·산제비·산새들새·못새·외기러기·울새·자명새·자규·피꼬리·낙타·귀뚜라미·달팽이·늑대·다람쥐·말·소라·송아지·아지랑이·칠면조·풀벌레·양떼·양·쌍나비·벌레·젓소

· 송사리 · 조개반디불 · 물오리 · 은조개 · 비마 · 숭어 · 불나비 · 멍멍개 · 토끼 ·
뚜꺼비 · 청룡꿈 · 나귀새

3.2.3 산하(강·산·바다)를 나타내는 어휘

산하를 나타내는 어휘 중 「강·산·바다」의 용례와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강·산·바다」의 전체 사용률은 일본은 2.12%이고 한국은 2.18%로 한국이 0.06% 높다. 「산」은 일본이 0.96%이고 한국이 1.16%로 한국이 0.19% 높고, 「강」은 일본이 0.37%이고 한국이 0.53%로 한국이 0.16% 높다. 「바다」의 사용률은 일본이 0.79%이고 한국이 0.49%로 일본이 0.30% 높다.

<표4> 산하를 나타내는 어휘

산하	한국	일본
산(山)	1.16	0.96
강(川)	0.53	0.37
바다(海)	0.49	0.79
합계	2.18	2.12

「강」의 경우 한국인들이 강을 <예문5>와 같이 주로 이별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혹은 인생이 강물처럼 덧없음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강물 본래의 자연물의 의미와 <예문6>과 같이 고향을 연상하게 하는 매개체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문5>

약산동대 진달래꽃 피고 지고 흐른 세월 배따라기 고향노래 잊은지 몇 해인가 떠나오던
그날밤에 울던 대동강 누굴 위해 자규는 울어를 주나 울어라 대동강아 넘없는 땅에(울
어라 대동강 고향이 이제호 이해연) 강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6>

河の流れは ウスリー江

あの山も この谷も 故郷を

想い出させる その姿(青山脈 西條八十 腹部良一)

<강의 용례>

일본: 川·小川·川面·眞室川·山川·川端·渚·河·山河·駿河灣·河源·湖·琵琶湖·浜名湖·泉

한국: 산천·강·백마강·대동강·강산·낙동강·고향산천·임진강·강바람·남강·대동강물·세느강·섬진강·영산강·노들강변·강변·강물결·인천·시냇물·시냇가·호수·샘물·샘터·샘물터

「산」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유행가에서 꽃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이다. 한국의 「산」의 경우 전체적인 사용률도 높고 별개어수도 많다. 그리고 「남산·금오산·도봉산·서기산·부소산·인왕산」 등의 친숙한 고유이름이 많고 이들은 대부분 떠나두고 온 고향산천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산」의 경우, 자연 속의 산의 정취와 고향산천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의 고유이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이 섬나라인 일본과는 달리 지형적인 여건상 험준한 산맥과 산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행가에 많이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산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의 용례>

일본: 山·山脈·はげ山·海山·山小舎·山河·砂山·山中·山川·杉山·柴山·野山·裏山·山肌·野山·峠·丘·森·谷·谷間

한국: 산·산천·강산·산골짜기·고향산천·남산·금오산·강산절개·도봉산·산아래·서기산·산밑·산마루턱·산수·부소산·산맥·인왕산·산마루·산마루·산들·산두메·첩첩산중두메·청산·북악산·황산·유달산·약산동대·녹수청산·뒷산·구월산산·금수강산·계룡산·두메산골·언덕·언덕길·숲·기슭·고개·바우고개·성황당고개·불고개·눈물고개·고개마루·산곡·구곡간장·구비·추풍령·이화령·대관령·고모령

「바다」의 경우, 일본유행가에서 「꽃> 산」 다음으로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본이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소재가 유행가에 많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海峽·北海航路·航海·航海燈·海女·小島·島·廣島·浮き島·岬·浜·桂浜·波·波止場·難波·白波·波間·波風·うず潮·潮風·潮·黒潮」등 관련어휘가 한국보다 훨씬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은 주로 「남해·송도섬·오륙도·월미도·제주도·송도·현해·파도·화산도·울릉도·작약도」등

의 특정 바다나 섬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많이 있다. 바다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다의 용례>

일본: 海・海山・海原・玄海灘・海峽・北海航路・航海・航海燈・海女・海鳥・小島・島・廣島・浮き島・岬・國後岬・燈臺岬・浜・桂浜・波・波止場・難波・白波・波間・波風・荒波・しぶき・潮路・うず潮・潮風・潮・潮來・出潮・黒潮

한국: 바다・세상바다・천진바다・밤바다・황해바다・남해・바닷가・바닷물・수평선・섬・송도섬・파도・오륙도・월미도・제주도・삼다도・송도・파도소리・현해・파도・화산도・울릉도・은파도・작약도・물결・제물포・물결소리

3.2.4 기상 I (달・별・빛・하늘・구름)을 나타내는 어휘

기상을 나타내는 어휘 중 「달・별・빛・하늘」을 나타내는 어휘의 용례와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은 다음의 <표5>와 같다. 전체 사용률이 일본은 2.00%이고 한국은 2.26%로 한국이 0.26% 높다. 「달」의 경우, 일본은 0.59%이고 한국은 0.65%로 한국이 일본보다 0.06% 높다. 「별」의 경우, 일본은 0.16%이고, 한국은 0.46%로 한국이 0.30% 높다. 「빛」의 경우, 일본과 한국 모두 0.76%로 그 사용률이 비슷하다. 「하늘」의 경우, 일본은 0.51%이고 한국의 사용률이 0.36%로 일본이 0.15% 높다.

<표5> 기상 I을 나타내는 어휘

기상 I	한국	일본
달(月)	0.65	0.59
별(星)	0.46	0.16
빛(太陽・光)	0.76	0.76
하늘(空)	0.36	0.51
합계	2.50	2.20

「달」의 경우 한국은 달의 종류와 그 형태가 일본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한일 모두 5월의 사용률이 높았고 일본에서는 3월을 벚꽃, 5월을 창포와 맑은 하늘과 관련시켰고 한국에서는 3월을 꽃과 수양버들로, 5월을 오작교와 단오 등과 관련시켰다. 특히, 한국의 5

월은 1년에 단 한번밖에 만날 수 없는 견우와 직녀의 애뜻한 만남처럼 지나간 이별 뒤에 오는 만남이라는 의미로 부각시키고 있다. 달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달의 용례>

일본: 月・月夜・滿月・三(みつき)・五月・幾歲月・毎月・三月・三月三年・三日月・三日月娘・夕月・年月・月見・月様・月影・三日月様・正月・おぼろ月・黄金月

한국: 달빛・달・달님・조각달・초생달・달밤・삼월달・동지선달・보름달・석달・정월달・여섯달・사월달・일곱달・여덟달・오월달・팔월달・한달・이월달・유월달・눈썹달・그믐달・달맞이・달무리・고향달・녁달・다섯달・달나라・춘삼월・두달

「하늘」의 경우, 일본에서는 「靑空・空・夜空」 등이 많이 쓰이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을 고하는 대상 혹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리운 고향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늘을 슬픔, 원망 등의 감정이입과 「하늘아・하늘이여」 등의 돈호법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다. 하늘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하늘의 용례>

일본: 空・靑空・夜空・大空・空陽・寒空・夕燒ける

한국: 하늘・밤하늘・하늘가・새벽하늘・하늘땅・고향하늘

「별」의 경우, 한국의 「칠성별・별님・별빛・셋별・별님・고향별・직녀성・복두칠성・견우성」 등이 일본의 「星・流れ星・星座」의 세 종류에 비해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률이 0.30%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별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보다 별이 하늘에 홀로 떠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 모습에 비유한 표현이 많다. 즉 별이 기쁨의 대상이 아닌 원망과 슬픔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하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별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별의 용례>

일본: 星・流れ星・星座

한국: 별・칠성별・별님・별빛・셋별・별님・고향별・직녀성・항구별・푸른별・복두

칠성·견우성·별들

「빛」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사용률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달빛·해·별빛·빛·봄빛·태양·불빛·등불·노을·석양·은색빛」 등과 같이 다양한 용례로 빛을 열거하고 있다. 빛은 「夕陽·光·陽·日暮·太陽·日さま·星影·蔭·明かそ·달빛·해·별빛·빛·봄빛·태양·햇빛·노을·햇님·석양·태양일·은색빛·햇별·월색·일곱빛·저녁빛」 등의 자연의 빛과 「燈影·燈かげ·燈臺あかり·遠燈り」 등불·네온사인·가로등불」 등의 인위적인 빛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자연의 빛의 종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빛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빛의 용례>

일본: 夕陽·光·陽·日暮·太陽·日さま·燈影·星影·燈かげ·燈臺あかり·蔭·明かそ·遠燈り

한국: 달빛·해·별빛·빛·봄빛·태양·불빛·등불·햇빛·노을·햇님·석양·태양일·은색빛·햇별·월색·일곱빛·저녁빛·네온사인·가로등불

3.2.5 기상II(바람·비·눈·안개·이슬·구름)를 나타내는 어휘

기상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 「바람·비·눈·안개·이슬·구름」을 나타내는 어휘의 용례와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은 다음의 <표6>과 같다. 전체 사용률이 일본은 2.01%이고 한국은 1.46%로 일본이 0.55% 높다. 「바람」의 경우 일본은 0.70%이고 한국은 0.40%로 일본이 0.30% 높고, 「비」의 경우 일본은 0.49%이고 한국은 0.51%로 한국이 0.02%포인트 높다. 「눈」의 경우 일본과 한국 모두 0.21%로 같고, 「안개」의 경우 일본은 0.28%이고 한국은 0.04%로 일본이 0.24%로 월등히 높고, 「이슬」의 경우 일본은 0.14%이고 한국은 0.05%로 일본이 0.09%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름」의 경우, 일본은 0.20%이고 한국은 0.24%로 한국이 0.04% 높다.

<표6> 기상II를 나타내는 어휘

기상II	한국	일본
바람(風)	0.40	0.70
비(雨)	0.51	0.49
눈(雪)	0.21	0.21
안개(霧)	0.04	0.28
이슬(露)	0.05	0.14
구름(雲)	0.24	0.20
합계	1.46	2.01

특히, 「안개·이슬」은 일본이 한국보다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사용률도 높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바람도 많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보다 「안개와 이슬」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비·눈·안개·이슬」에 관한 어휘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바람의 용례>

일본: 風・そよ風・夜風・嵐・春風・潮風・雨風・南風・松風・野風・夕風・波風・風車・木枯し

한국: 바람·봄바람·비바람·가을바람·바람결에·꽃바람·강바람·찬바람·산들바람·바람차다·바람소리·바람나다·북풍한설·순풍·미풍·풍월작문

<일본과 한국의 비의 용례>

일본: 雨・小雨・時雨・小糠雨・一雨・雨風・涙雨・情雨・こぬか雨

한국: 비·봄비·비바람·이슬비·보슬비·실비·소낙비·밤비·부슬비·이별비·한풍설우

<일본과 한국의 눈의 용례>

일본: 雪・吹雪・雪國・根雪・粉雪・雪しぐれ・雪崩・新雪・雪割・ゆきずり

한국: 눈·눈꽃·눈보라·흰눈·북풍한설·한풍설우

<일본과 한국의 안개의 용례>

일본: 霧・夜霧・狹霧・霧笛

한국: 안개·실안개

<일본과 한국의 이슬의 용례>

일본: 露路裏·露路·露·露地·夜露虹

한국: 이슬·이슬비

「구름」의 경우 「흰구름·먹구름·청운」 등과 빛의 「은색빛·일곱빛」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각적인 표현을 극대화하여 현실감 있는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구름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구름의 용례>

일본: 雲·浮雲·雲間·夕雲

한국: 구름·뜬구름·꽃구름·흰구름·먹구름·구름길·청운·무운장구

3.2.6 광물을 나타내는 어휘

광물을 나타내는 어휘 중 「바위·돌·모래·흙」을 나타내는 어휘의 용례와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은 다음의 <표7>과 같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사용률은 0.25%이고 일본의 사용률은 0.14%로 한국이 0.11% 높음을 알 수 있다. 「바위」의 경우 일본은 0.01%이고 한국은 0.04%로 한국이 0.03% 높고, 「돌」과 「모래」의 경우 일본과 한국 모두 0.05%와 0.02%로 같다. 「흙」의 경우 일본은 0.11%이고 한국은 0.17%로 한국이 0.06% 높다. 일본과 한국 모두 흙의 사용률이 다른 바위·돌·모래의 사용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7> 광물을 나타내는 어휘

광물	한국	일본
바위(岩)	0.04	0.01
돌(石)	0.05	0.05
모래(砂)	0.02	0.02
흙(土地)	0.17	0.11
합계	0.28	0.19

특히, 한국은 「흙·땅·고향땅·티향땅·타관땅·타국땅·황주땅」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

을 떠나야만 하는 절망감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연히 한국인은 자신들의 평생의 터전이라고 여겼던 땅에 대한 집착이 일제 강점기 이후 더욱더 강해진 면모를 유행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물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바위의 용례>

일본: 岩

한국: 바위 · 석굴암 · 낙화암 · 의암

<일본과 한국의 돌의 용례>

일본: 石 · トルコ石 · 敷石道 · 石だたみ · 石壇 · 小石投音 · 石ころ

한국: 조약돌 · 조각돌 · 돌맹이 · 돌부리 · 돌뿌리 · 돌장 · 돌적

<일본과 한국의 모래의 용례>

일본: 砂 · 砂漠 · 砂山 · 白砂

한국: 모래알 · 모래밭 · 모래

<일본과 한국의 흙의 용례>

일본: 土 · 地 · 土地 · 大地 · 空地 · 露地 · 地上 · 下地 · 土間 · 燒土

한국: 흙 · 땅 · 고향땅 · 타향땅 · 타관땅 · 타국땅 · 하늘땅 · 황주땅 · 대지 · 세상천지 · 천지간 · 양지쪽 · 지상 · 백사지땅

3.2.7 경지를 나타내는 어휘

경지를 나타내는 어휘 중 「밭·들」을 나타내는 어휘의 용례와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은 다음의 <표8>과 같다. 일본의 사용률이 0.18%로 한국의 사용률 0.1% 보다 약 0.08% 높다. 일본은 들의 사용률이 밭보다 0.04% 높은 반면에 한국은 밭의 사용률이 들보다 0.04% 높다.

<표8> 경지를 나타내는 어휘

경지	한국	일본
밭(畑)	0.07	0.07
들(野)	0.03	0.11
합계	0.10	0.18

「밭」의 경우, 일본은 「花畑・リンゴ畑・麥畑・小麥畑」 등 꽃과 사과, 보리 등의 식물이 자라나는 터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수수밭・밭」을 제외하고 「가시밭길・화전밭」 등 현실의 고달픔과 절망감등을 나타내고 있다. 경지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밭의 용례>

일본: 畑・花畑・リンゴ畑・麥畑・小麥畑

한국: 가시밭길・수수밭・밭・모래밭・풀밭・화전밭・잔디밭・가시밭

<일본과 한국의 들의 용례>

일본: 野・野暮・野末・枯葉野・野ばら・野山・野風・燒野・荒野

한국: 산들・들판・노들강변・황야・야영

4. 마치며

본고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국 유행가 235곡과 일본 유행가 233곡을 계량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유행가 어휘를 분석해 보았다. 그 중에서 유행가의 소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 그 중에서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 동물을 나타내는 어휘, 산하를 나타내는 어휘, 천문을 나타내는 어휘, 기상을 나타내는 어휘, 광물을 나타내는 어휘, 경지를 나타내는 어휘 등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노래로 표현하고자 한 것을 가시화해 보았다.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사용률이 높은 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는 「花>山>光>月>鳥>江>雨>海>星>風>空>動物>雪>雲>木>土

>草>畑>石>露>岩>霞>野>砂』의 순이고, 일본의 경우는 「꽃>산>바다>빛>바람>새>달>하늘>나무>비>강>동물>안개>눈>구름>별>이슬>흙>들>풀>밭>돌>모래>바위>바위」의 순이었다. 「꽃·산」의 사용률이 양국 모두 높고, 「이슬·안개·나무」의 경우는 한국에서 그 사용률이 아주 낮은 반면 일본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바람도 많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보다 안개와 이슬의 사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한국인이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정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행가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꽃」은 꽃의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꽃이 피고 지는 모습 등을 통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유행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꽃은 일본은 「薔薇>櫻>白樺>アカシヤ」이고, 한국은 「장미꽃>동백꽃>진달래>무궁화」의 순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장미가 가장 많았고 양국의 국화인 벚꽃과 무궁화가 역시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동물」의 경우, 어휘 사용률은 한국과 일본 모두 비슷하지만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에 비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유행가에 나타난 동물 중에서는 새의 용례가 다른 동물의 용례보다 월등히 많고, 「千鳥 お前も 切なかる」, 「물새야 왜 우느냐」 등 새의 심상을 통해 자신의 가련함과 슬픔 등을 노래한 것이 많이 있다.

「산」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유행가에서 꽃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이다. 일본은 자연 속의 산의 정취와 고향산천의 의미로 쓰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의 고유이름 등은 많지 않다. 이는 한국이 섬나라인 일본과는 달리 지형적인 여건상 험준한 산맥과 산등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강」의 경우, 한국인들이 주로 이별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혹은 인생이 강물처럼 덧없음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강물 본래의 자연물의 의미와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률도 아주 낮았다.

「바다」의 경우, 일본유행가에서 「꽃>산」 다음으로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본이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소재가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달」의 경우, 한국의 사용률이 일본보다 0.06% 높고 달의 종류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한일 모두 5월의 사용률이 높고, 특히 한국의 5월은 1년에 단 한번밖에 만날 수 없는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만남처럼 지나간 이별 뒤에 오는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별」의 경우, 한국의 「칠성별·별님·별빛·셋별·별님·고향별·직녀성·복두칠성·인공위성·견우성」등이 일본의 「星·流れ星·星座」의 세 종류에 비해 그 종류와 사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별」은 기쁨의 대상이 아닌 원망과 슬픔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하늘」의 경우 일본의 사용률이 0.15% 높지만 한국의 하늘과 같은 원망 등의 감정이입, 「하늘아·하늘이여」 등의 돈호법의 표현은 없다.

「빛」과 「구름」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사용률은 거의 비슷하다. 한국의 경우 「은색 빛·일곱빛·흰구름·먹구름·청운」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법에 있어서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쓰이고 있다.

「바위·돌·모래·흙」의 경우 일본과 한국 모두 흙의 사용률이 다른 바위·돌·모래의 사용률보다 높다. 특히 한국은 「흙·땅·고향땅·타향땅·타관땅·타국땅·황주땅」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절망감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밖에 「바람·비·눈·안개·이슬」, 「발·들」에 관한 어휘들을 알아보았다. 금후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유행가의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뿐만 아니라 유행가에 나타난 지역명과 국명 등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어휘 분석결과와 함께 1910년부터 1960년까지의 유행가 어휘 변화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 문화상, 정치상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싶다.

【注】

- 1) 김점도(2000) 『유성기로 들던 가요사 해방-1960』

일제 강점기 이전 유성기로 들던 SP음반은 1950년대까지 앞 뒷면에 한 곡씩만이 수록되었던 것으로 당대의 명가수들이 나라를 잃었을 땐 민족의 울분을, 해방을 맞았을 땐 환희에 찬 노래를 불렀고, 6.25시엔 전쟁에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정서를 달래주었다. 이런 귀중한 소리가 담긴 SP음반이 차츰 사라지고, 새로 나온 판들도 제대로 보존된게 없어 오리지널 가요를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 신나라 레코드사가 해방이후의 SP음반을 어렵게 수집해 복각음반으로 출판하게되어 매우 가치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 2) 참고로 『新版 日本流行歌史上』은 1868년부터 1937년까지의 유행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제외되었다.
- 3) <표2>이하 각 표에 제시된 숫자는 전체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을 제시하면 <표2> 식물을 나타내는 어휘와 같다.

參考文獻

- 김점도(2000) 『유성기로 들던 가요사 해방-1960』 신나라레코드
- 김희정(2001)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對照研究 -1945년부터 1960년까지-』 日本語學研究 第3輯 韓國日本語學會
- 김희정(2002) 『日帝 強占期以後의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對照研究』 日本語學研究 第6輯 韓國日本語學會
- 이영미(1998)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 인문과학연구소 제20회 학술 심포지움(2000) 한국대중가요의 종합적 검토-일제 강점기 부터 1960년대까지-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金田一春彦(1986) 『木の名 草の名』 言語生活 413 筑摩書房
- 中野洋(1985) 『流行歌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明治書院
- 橫矢島古外3(1994) 『新版 日本流行歌史 中』 社會思想社
- 橫矢島古外3(1994) 『新版 日本流行歌史 下』 社會思想社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の 一考察

金 姬 廷

本稿は1945年から1960年までの韓國の流行歌235曲と、日本の流行歌233曲を計量言語學的方法を通じて流行歌の語彙の分析を行い、日帝強占期以後の流行歌に表われる語彙の様相及びその特徴を量的な側面から計量することに目的がある。現行流行歌はその時代の大衆情緒および文化意識が、もっともよく反映された資料であると言える。流行歌の分析を通して、その歌謠が流行したその時代の文化意識を具體的に探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まず流行歌で最も使用率の高い自然物を表す語意の中、「月・星・光・空・雲」「風・雨・雪・霞み・露」「花・木・草」「山・江(川)・海」「岩・石・砂土地」「畑・野」に関する語彙を調査して見た。自然物を表す語彙を使用率が高い順で示すと次のようになる。韓國の場合は「花>山>光>月>鳥>江>雨>海>星>風>空>動物>雪>雲>木>土>草>畑>石>露>岩>霞>野>砂」の順である。日本の場合は「花>山>海>光>風>鳥>月>空>木>雨>江>動物>霞>雪>雲>星>露>土>野>草>畑>石>砂>岩」の順である。「花・山」の使用率が兩國とも高く、「霞み・露」の場合は韓國ではその使用率が低い一方、日本では高かった。これは日本人がこの自然物に對して韓國人が感じていない特別な情緒がある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今後は今まで調査した流行歌の語彙以外にも交通手段に関する語彙、數を表す語彙、および流行歌の語彙と雑誌・新聞などの語彙とはどのように違いがあるのかを調べてみたい。さらに、1910年から1945年までの語彙の分析を通じてその結果を比較・分析して、1910年から1960年までの流行歌の語彙の流れを把握することによって、當代の社會相・文化相・政治相なども調べていきたい。